슈가 'D-2' 커버

BTS 슈가의 '대취타', 빌보드 핫100 76위

〈믹스테이프 D-2의 타이틀곡〉

美 사이비종교 교주 연설 샘플링 논란에도
한국 솔로가수 첫 앨범·싱글 차트 동시진입

논란만큼 인기도 뜨겁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과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슈가가 지난달 22일(이하 한국시간) '어거스트 디'(August D)의 이름으로 발표한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의 타이틀곡 '대취타'가 4일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76위를 차지했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11위에 올랐다. 앞서 싸이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핫100' 2위까지 올랐지만, 앨범 차트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이로써 슈가는 방탄소년단의 멤버로서 지닌 글로벌 팬덤과 실력은 물론 솔로가수의 탄탄한 입지까지 과시하게 됐다. 아티스트 인지도를 분석하는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4위를 차지한 것도 이를 말해준다. 또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믹스테이프의 모든 수록곡을 순위에 올려놓았고,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는 2위에 오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슈가는 세계 팝음악 시장의 양대 차트로 꼽히는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7위)에 이름을 올린 한국 최초의 솔로가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리만큼 최근 잇단 논란에 휘말려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D-2'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의 도입부에 미국 사이비종교 '인민사원' 교주 짐 존스의 연설 음성을 샘플링해 비난을 받았다. 짐 존스는 신도들에게 음독자살을 강요해 91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당 부분을 제거하고 음반을 다시 내놨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은 프로듀서이기도 한 슈가가 "그 출처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용했을 리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2020년 6월 5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피말리는 후반 승부처, 단 한 명의 좌타자를 잡기 위해 투입되는 특공대

'원아웃'에 인생을 건 좌완 스페셜리스트의 세계

좌완 스페셜리스트는 경기 중후반 좌타자를 잡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7개의 아웃카운트 중 단 하나를 잡기 위해서지만, 이들의 성패는 경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두산 권혁, NC 임정호, 두산 이현승, 삼성 임현준, LG 진해수(왼쪽 부터)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스페셜리스트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권혁 "실투 하나면 끝,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
임정호 "스페셜한 상황 극복 우리들만의 재미"
이현승 "마무리보다 조명받지 못하는 건 숙명"
임현준 "MLB선 없는 KBO리그의 문화될 수도"
진해수 "옅어지는 통계…긴 이닝 소화 필요해져"

팽팽한 경기 중후반 승부처, 좌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하자 수비측 벤치가 분주해진다.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단 한 명의 좌타자를 잡아낸 뒤 그대로 다시 내려간다. 27개의 아웃카운트 중 단 하나일 뿐이지만,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 그라운드의 공기는 달라진다. 원 포인트 릴리프, 이른바 '왼손 스페셜리스트'가 선사하는 짜릿함이다.

●잘하면 티 안 나고 못하면 티 확 나고…

KBO리그 최다 등판(901경기) 기록을 가진 류택현을 시작으로 가득염, 이명우(이상 은퇴) 등 각 팀 스페셜리스트는 KBO리그 역사와 함께했다. 2020시즌에도 임현준(삼성 라이온즈), 임정호(NC 다이노스), 진해수(LG 트윈스), 권혁(두산 베어스) 등은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충은 분명하다. 이현승(두산)은 "선발이나 마무리투수처럼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하는 자리"라고 정의했다. 진해수 역시 "스페셜리스트의 홀드나 아웃카운트는 세이브만큼의 인정을 못 받는다"며 "잘하면 티가 안 나는데 못하면 티가 많이 난다. 이런 게 숙명 같다"고 설명했다. 임정호는 "좌타자만 잡아내면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베테랑' 권혁은 "셋업맨, 마무리, 스페셜리스트, 패전조 등 모든 역할을 해봤다. 불펜, 특히 스페셜리스트는 '다음'이 없다. 공 하나를 잘못 던지면 실패한 것"이라며 "주목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페셜한 상황을 스페셜하게 막아낸다!

미국 메이저리그(ML)는 올 시즌부터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최소 세 타자를 상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스페셜리스트를 규정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스피드업'을 위한 조치인데, 좌타자와 좌투수를 둘러싼 벤치의 머리싸움 등 야구의 흥미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지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선수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임현준은 "9회가 아니더라도 승부처는 있다. 그 순간 아웃카운트 한 개를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ML에서 볼 수 없는 KBO리그만의 문화로 남겨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좌타자만 주로 상대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1이닝씩 책임지는 경우가 늘어난 진해수는 "좌투수가 좌타자에게 강하던 통계도 최근에는 옅어지고 있다. 이제는 투수 입장에서도 긴 이닝을 책임질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스페셜(special). 보통의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임정호는 "야구를 하나의 흥미요소로 살펴보면 스페셜리스트만 줄 수 있는 재미도 있다. 스페셜한 상황을 스페셜하게 막아내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고 너스레를 떨며 자신의 역할을 정의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목표는 모두가 같다. 팀 승리를 위해 눈앞의 한 타자만 생각하며 공을 뿌린다. 오늘도 음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든 스페셜리스트에게 박수를 보낸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3962호(2019.12.24) 〈COM-2019-12-30893〉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 난감하다고 생각될 때, 이제 걱정 마세요
큰 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무배당 백세시대 꼭하나건강보험 (갱신형)

노출혈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암생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나이가 많아도 (40~75세) | 지병이 있어도 |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AIA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50% 지급, 진단금은 최초 1회한)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암은 첫날부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스벤슨 블랜더
상담완료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 2020. 01. 01 ~ 2020. 06. 30)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분 이상 상담 시(개인정보 제공)
• 배송은 상담완료 후 약 6주 소요(1인 1회 한정)
(당사 사은품 지급 누적 연 2회 초과 시 지급 제한)
• 본 경품은 소비자가 기준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조기 품절 시 다른 경품으로 대체 발송됨